

석유화학, 정기보수로 돌파구...

여천NCC 비롯 5-6월 정기보수 밀물 ... 가격상승 여부 주목

석유화학 경기가 한풀 꺾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5월 들어 일제히 정기보수에 돌입, 향후 시세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 최대의 에틸렌 생산기업인 여천NCC(생산능력 130만톤)는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약 1달간 정기보수에 돌입한다. 현대석유화학도 5월 나프타 분해시설을 점검하며, LG석유화학은 5월 한달간 정기보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틸렌 생산량이 17만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에틸렌 생산능력 550만톤의 3%에 해당하는 양이다.

PS와 ABS의 주원료인 Styrene도 현대석유화학이 5월 2째주에 제2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삼성종합화학은 P-X(Para-Xylene) 48만톤 플랜트를 5월14일부터 6월18일까지 정기보수할 방침이다.

한화석유화학은 5월 중순부터 약 15일에 걸쳐 LDPE 플랜트의 정기보수를 실시하며, 현대석유화학과 LG화학도 10일 가량 플랜트를 점검한다.

폴리미레는 PP 플랜트의 정기보수를 위해 4월말에서 6월초까지, 현대석유화학은 5월 하순부터 6월초까지 생산라인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이에 따라 약 2만4000톤의 PP 감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타이완의 Formosa Petrochemical은 4월말 보일러시설의 트러블로 에틸렌 90만톤 크래커 가동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정기보수가 5-6월에 몰려 있어 석유화학제품 공급이 줄어드는 감산효과가 나타나고, 해외 석유화학 플랜트의 공장 트러블과 맞물려 2/4분기에도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 시장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수급타이트 현상이 3월 중순부터 도래해 4월 중순 이미 거품이 꺼진 상태로 5-6월 한국의 정기보수 집중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가격상승은 일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5/ 07 >